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의 중요성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하며,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고, 다시 기억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평생 동안 일반인구집단의 약 3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및 외상에 노출될 수 있고, 이들 중 약 10~2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고, 생산성 저하, 작업일 감소 등으로 인해 실직 문제, 금전적 문제 등을 동반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체질환,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가정불화 등을 동반한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수
양선희

미국에서는 심장질환 다음으로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꼽고 있다. 2016년도 우리나라 산재통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는 25건에 불과하지만, 이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 등으로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약 9만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1,800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900여 건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는 최소한 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최소한 1명의 목격자 혹은 구조자가 발생하여, 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최소한 2명이 심리적 외상에 노출될 수 있다. 재해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재해자와 1차 목격자 외의 목격자, 응급 처치나 구조에 참여한 노동자, 안전보건 관리자, 교대 조원, 팀원, 기숙사 룸메이트, 노동부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직원, 사고 조사단 등 매우 많은 사람이 심리적 외상에 노출될 수 있어 9만여 건의 산업재해는 최소 18만 건, 많게는 수십만 건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관리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적인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2017년 9월 산재트라우마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전국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목적은 첫째,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안정화함으로써 조기에 일상생활과 작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둘째는 노동자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2차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착되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적응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적인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넷째는 노동자의 불안이 심하거나 수면장애 등이 심한 경우 조기에 전문가 치료를 연계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최종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사건충격 정도가 정상화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잔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트라우마 상담을 시작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트라우마는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외에도 일반적인 산재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메탄올중독과 같은 급성중독 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업무 관련성 뇌심혈관질환을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써 발생하는 트라우마, 직장 내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트라우마, 동료의 자살을 목격하거나 간접 경험함으로써 발생하는 트라우마,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직장에서의 폭력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사고현장을 제거할 수 없으며, 매일 출근하여 일하는 곳이어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현장에 재노출, 재경험 할 수 있으며, 직장 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일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인 대처방식 등에 크게 차이가 있어 노동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것을 동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신이 나약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현장이 철저히 조사되고 개선되었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적 반응이나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고 서로 돕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전 노동자가 상담을 하거나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나약하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업무와 관련된 트라우마 관리의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향후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는 매우 많다. 우선은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업주, 관리자, 노동자, 고용노동부의 감독

관,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등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트라우마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산업재해 트라우마의 상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재해 경험자, 목격자를 비롯하여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는 삼성중공업과 같은 대형 재해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 심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응급처치를 비롯하여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심리사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는 퇴직자, 이직자, 재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가족이다. 또한 재해로 인해 퇴직하거나 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소통이 어려워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외국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불안이나 우울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심리적인 트라우마 관리에 있어서는 통역 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관리의 영역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이외의 폭력, 성폭력, 자살, 직무 스트레스 등 직업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상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직장에서의 상담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 접근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은 다른 원인에 의한 부상자들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더 고통을 받았으며, 정신 사회적인 증상과 더불어 직장으로 복귀가 더 안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착되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적응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